5.18 광주, 불교는 무엇을 했나

5.18재단, 〈5 · 18의 기억과 역사〉 불교편 발행

5.18 광주 민주화운동 37주년을 맞아 당시 불교 사부대중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망라한 구술사 연구서가 나와 눈길을 끈다.

5.18기념재단은 최근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5 · 18의 기억과 역사 8-불교 · 원불교〉편을 발간했다.〈사진〉

불교편에는 성연 스님(증심사), 의연 스님(백양사), 이광영(당시 진각 스님), 故김동수 열사, 박행삼, 김호균, 김형귀, 김광수, 정철 등 당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불교 인사들의 구술 인터뷰가 실렸다.

이들의 인터뷰는 당시 불교계가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증언들이다. 급박했던 순간에 대한 기억들과 더불어 5.18이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 수 있는 역사 자료이기도 하다.

가장 극적인 삶을 보여준 인물은 진각 스님으로 적십자 구호활동에 참여했던 이광영 씨다.

본래 화엄사 스님으로 1980년 당시 나주 다보사에서 공부하던 그는 광주 증심사의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돕기 위해 광주에 왔다가 항쟁에 참여했다.

5월 19일 도반 성연 스님과 함께 시장에 갔다가 계엄군의 시위 진압을 목격하고 스스로 시위에 나갔다. 참혹한 현장을 목도한 진각 스님은 헬리콥터의 기총사격으로 쓰러진 여학생을 적십자 병원으로 옮기게 되고, 의사의 부탁으로 적십자 봉사대원으로 활동한다.

혈액 보급과 환자 후송을 하던 진각 스님은 도청 근처에서 계엄군의 총격을 받게 되고, 부상자를 돕던 중 척추에 총을 맞았다. 대수술 끝에 목숨은 건졌지만, 하반신은 마비됐다.

당시 상황에 대해 진각 스님은 "몸이 저릴 때 나는 느낌이 총소리가 들리자마자 척추에 왔다. 그러고는 몸에 힘이 하나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 넘어졌다"며 "그때부터 총을 연발로 쐈다. 두 명이 차를 못 타서 죽었다"고 말했다.

항쟁 이후 반신불수가 된 진각 스님은 사찰로 돌아가지 못하고 환속해 결혼했다. 이후에도 고초는 계속 이어졌다. 반신불수가 됐지만 '폭도'로 분류돼 강제 퇴원돼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했고, 지속적인 감시와 탄압 속에 살았다. 그러면서도 1982년 5.18부상자회 창립에 참여하는 등 운동 당시 부상을 입었던 시민들의 치료 · 보상을 위해 노력했다.

진각 스님의 도반 성연 스님도 시위에 참가했다. 구호대에서 활동한 진각 스님의 총상 소식에 그를 찾았을 당시 소회는 가슴을 아프게 한다. 성연 스님은 "진각 스님이 부모님 오시기 전에 자신을 증심사의 토굴로 옮기고, 그곳에서 염불하며 연탄을 피워달라고 했다. 빨리 이 몸을 벗고 인도환생해 다시 승려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며 "공감은 한다. 하지만 그럴 수 있는가. 결국 부모님이 오셔서 치료를 받게 됐다"고 술회했다.



구호 활동 참여 진각 스님
척추관통상 입어, 반신불수
환속 후 5.18부상자회 결성
성연 스님도 참여 후 고초
민불련 창립 기여 등 활동
관음사 · 증심사 등 지역사찰
불자회 활동상도 확인돼

항쟁 이후 성연 스님은 민주화운동에 투신했고, 1985년 민중불교연합 창립에 참여하고 이념분과위원장을 맡았다. 또한 인천 항쟁에 참여해 시위하다 구속됐다.

동생인 김동채 씨가 구술한 故김동수 열사의 삶에서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전남지부와 원각사의 활동 일련을 알 수 있다. 구술자는 "원각사는 금남로에 있는데 항쟁 당시 시민들이 피를 흘리고 절마당에 쓰러지니 신도들은 난리가 났다. 그때부터 신도들이 항쟁에 참여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광주불교학생회 22대 회장이었던 김형귀 씨는 광주 관음사의 봉축 준비를 하던 중 항쟁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대동고 교사였던 박행삼 씨(원각사 불일학생회 지도교사)는 고향 해남으로 가서 시민군을 조직해 광주로 오던 중 계엄군에게 무장해제를 당하기도 했다.

함께 수록된 정철 법사(광주불교교육원)의 소논문은 5.18민주화운동에서 불교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3.1운동 100주년 사업 본격화

불교사회硏, 6월 30일 세미나… 첫 사업 시작

지난해 연구위원회 설립해
김광식 교수 등 위원 참여
불교 항일 인사 · 사건 · 사찰
망라하는 자료집 발간 계획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불교계 항일 운동을 망라하는 사업이 본격화 된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소장 일감)는 오는 6월 30일 오후 2시 템플스테이 3층 문수실에서 '3.1운동 발발 배경과 개요'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불교계 3.1운동의 회고와 전망' '불교 독립운동가 개요(보훈대상)' '기념사업의 현황과 전망' 등의 전문가 발표가 이뤄진다.

이번 세미나는 조계종의 3.1운동 100주년 선양 사업의 첫 포문을 여는 것으로, 불교사회연구소는 오는 11월에도 불교계 항일 운동을 조명하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사업을 이어간다.

3.1운동 100주년 사업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불교사회연구소는 지난해 '3 · 1운동 백주년 기념사업 연구위원회(이하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2019년까지 3.1운동 및 일제강점기 불교 항일 운동을 망라하는 연구를 진행키로 결의했다.

연구위원회에는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를 비롯해 김경집 진각대학 교수, 김순석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원, 이동언 前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위원, 이경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사, 한상길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등이 참여한다. 이들 연구위원회는 3.1운동 및 일제강점기 불교계 항일운동 학술연구를 위해서 주제별, 시대별 연구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3.1운동을 비롯한 불교계 항일운동을 망라한 자료집 발간 사업은 눈길을 끈다. 불교 항일 인사, 사건, 사찰들을 총망라할 자료집에는 이를 뒷받침할 판결문, 당시 신문 · 잡지, 회고록 등을 수록될 예정이다.

또한, 매년 2차례 학술세미나를 통해 발표된 논문을 수정 · 보완한 논문집 〈3.1운동 및 불교계 항일운동 재조명(가제)〉을 매년 말 연속물로 발간할 계획도 갖고 있다.

박미경 불교사회연구소 연구원은 "100주년 사업은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불교 인사와 사찰에 대한 연구와 자료 발굴 · 조사를 통해 불교계의 항일운동을 재조명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며 "민족종교로서 불교가 어떤 항일운동을 펼쳤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국정원 국내정보 담당관 폐지 환영"

조계종 대변인 명의 논평

서훈 신임 국가정보원장이 국내정보 담당관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조계종이 환영 논평을 냈다.

조계종은 6월 1일 대변인 주경 스님 명의로 논평을 내 "새 정부가 국정원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며 국가정보기관을 정치와 분리시키려는 실천적 조치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은 이어 "우리 종단은 민간과 종교계에 대한 불법사찰 및 정치공작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특히 1980년 신군부의 폭압적인 10.27법난, 2008년 종단 소임자에 대한 계좌추적, 2012년 종단 고위직 스님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찰 등 아픔을 겪어왔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국가정보원은 국내정보 담당관 제도 폐지를 계기로 과거 정부에서 자행한 불법사찰 및 정치공작의 진상을 규명해 향후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호섭 기자

종단개혁 연석회의 출범 '직선제' 촉구

선원수좌회 등 7개 단체 참여

청정승가공동체 구현과 종단개혁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6월 7일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전국선원수좌회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 불교환경연대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연석회의는 이날 직선제 실현과 금권선거 등 악습을 바로잡고 한국불교 쇄신을 도모하고자 출범한다는 뜻을 밝혔다.

연석회의는 "대승의 보살은 밖으로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 켜켜이 쌓인 적폐 해소와 주권재민을 위한 길에 기꺼이 동참해야한다. 또 안으로는 무너진 조계종단을 바로 세워야한다"면서 "정법 수행이 사라지고 범계일탈이 만연하면서 승가공동체는 붕괴하고 연일 불자들이 절을 떠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연석회의는 총무원장 직선제와 관련해 강력한 뜻을 피력했다. 연석회의는 "구성원으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올 때 그 집단은 화합을 유지하며 발전한다"면서 "대중공의와 종도주권의 실현은 붕괴된 승가공동체 복원을 위한 전제다. 종도들이 종단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종단 대표자 또한 종도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연석회의에 참여한 스님들이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선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법안 스님(前 불교사회연구소장)은 "종단의 집행 · 대의 기관 및 종단 언론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섰을까 생각한다"면서 "연석회의 출범을 계기로 그동안 놓쳤거나 묵인한 종단 내 적폐들을 제대로 드러내 승가공동체를 여래의 집답게 복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석회의에는 전국선원수좌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불교환경연대, 신대승네트워크, 정의평화불교연대, 바른불교재가모임,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7곳 불교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다. 박아름 기자

자승 스님, 李 총리에 '공정사회' 당부

석가탄신일 명칭 변경 등 불교계 현안 대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이낙연 신임 국무총리에게 공정한 사회 구현을 당부했다.

자승 스님은 6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예방을 받고 "차별을 줄이고, 공정한 사회가 이뤄지도록 기원하고 있다. 총리께서도 이 부분에 관심 갖고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이에 이 총리는 "현대사회는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보다 풍요롭고 편리해졌지만 사람들 마음도 그렇다고 하기는 어렵다.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많이 지도해주시길 바란다"며 "정치권과 종교계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또 "정부가 모든 걸 다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교계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불교계도 총리님 직무와 관련해 국가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 예방에서는 석가탄신일 명칭을 '부처님오신날'로 변경하는 것과 오는 9월 열리는 한중일 불교도대회 성공적 개최 등 불교계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악수를 나누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사진제공=조계종 홍보국

이날 예방에는 교육원장 현응 스님을 비롯해 총무부장 지현 스님, 기획실장 주경 스님, 사서실장 심경 스님,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나종민 문체부 1차관, 양홍석 공보비서관, 김재원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등이 배석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6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